

# 한국 노인의 일상 지원을 위한 제3의 장소의 특성 및 구성요소

Characteristics and components of the third place for daily support of the elderly in Korea

최연희\* Choi, Yeonhee | 서현보\*\* Seo, Hyunbo

## Abstract

**Purpose:** Problems related to the elderly's daily life, such as social isolation and absence of a place to go, are already widely recognized, but there are few domestic studies or support policies for this, and the elderly leisure welfare facilities provided by the state do not fully support the elderly's daily life. There are studies related to the elderly's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facilities, which can be seen as the third place for the elderly in Korea, but these are mostly quantitative studies. In order to talk about the third place for daily support for the elderly in Korea, a detailed study of the use cases of the third place in Korea is needed. This study analyzes the third place of the elderly in Korea and discovers the characteristics and components. Based on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third place of the elder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ird place of the elderly in Korea and the elements constituting it are found to be able to represent the specific necessary environment of the third place of the elderly. **Methods:** The research targets include 'A Mill' (located in Jungnang-gu, Seoul), and 'Roadside in front of Villa B'(located in Dongdaemun-gu, Seoul), 'C-dong roadside park'(located in Dobong-gu, Seoul) within the range of repeated observations and meetings among the places used as a third place for the elderly was selected. The site survey consisted of in-depth interviews, observational survey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In-depth interviews were held for a total of 5 months, from October to December 2019 and from April to May 2020. **Results:** As a result, a total of 11 characteristics (adjacent to the residence, an open place, an independent space, a comfortable place to stay, a pleasant space, safety is guaranteed, a place that has been operated for a long time, a place that can be used autonomously, a place where social exchange occurs, No financial burden, fun activities) was discovered. **Implicatio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unlike the existing studies focusing on the use behavior of established institutions or facilities, the elderly identified the necessary environment through their own created places.

주제어: 노인의 제3의 장소, 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노인여가복지

Keywords: Older adult's third place, Welfare services, Elderly Welfare, Elderly leisure welfare

## 1. 서론

### 1.1 배경 및 목적

'제3의 장소(The Third Place)'란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urg)가 제시한 개념으로 "집과 직장을 제외한 중요한 장소"를 일컫

는다. 본 연구는 직장(노동 장소로서의 집을 포함한) 및 노년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외부활동이 일상에서 사라지고 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노인을 주목하며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제3의 장소를 제시한다.

2050년, 전 세계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12%의 수치의 약 두 배이다(WHO, 2015).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UN,

\* 회원 연구원 도시과학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주저자: yeonhee1717@gmail.com  
\*\* 이사, 부교수, 건축학과, 서울시립대학교(교신저자: hyunbo.seo@uos.ac.kr)  
본 논문은 202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최연희)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2019). 이에 도시·건축 분야의 많은 연구가 인구구조변화에 발맞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 노인 관련한 연구는 근래의 대표적 주제로 노인을 위한 주거, 의료시설, 복지시설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삶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본 연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거를 제외한 노인의 일상 속 활동 장소, 즉 제3의 장소를 들여다보는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약 삼분의 일을 차지할 만큼 길어졌다. 예전과 달리 노년기는 집과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며 다른 생애주기와 마찬가지로 활동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누려야 하는 긴 시간이다. 하지만, 평균수명은 갑작스럽게 늘었고 개인 및 사회는 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사회적 고립, 갈 곳의 부재와 같은 노인의 일상과 관련한 문제가 이미 만연하게 인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내연구나 지원정책은 거의 없으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의 일상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선 한국 노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제3의 장소를 제시한다. 다양한 해외 연구에서 노인의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말해왔으며 최근 들어 몇몇 국내에서도 한국 노인과 제3의 장소에 대한 연구를 발견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노인이 제3의 장소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하고 일상의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노인들의 제3의 장소를 이용 현상을 파악하는데 그치며 물리적 환경을 자세하게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리적 환경은 장소 이용 행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각 환경 요소에는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요구가 녹아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노인의 제3의 장소를 분석하고 특성과 구성요소를 발견한다. 노인의 제3의 장소 중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의 상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노인의 제3의 장소가 갖는 특성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찾아내어 노인의 제3의 장소의 구체적 필요 환경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지

본 연구에서의 제3의 장소는 기본적으로 올덴버그가 제시한 개념을 사용하되 일상생활에 밀접한 장소를 위주로 살펴보기 위하여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으로 가는 장소 중 정기적 또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제3의 장소로 정의하였다. 연구 대상지 선정에는 서울시 안에서 ① 노인이 직접 형성하거나 운영하는 자생적인 장소, ② 반복된 관찰 조사 및 심층 면담이 가능한 곳, ③ 일상적으로 장소를 활용하는 노인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두었다. 특히 '노인이 직접 형성하거나 운영하는 자생적인 장소'는 외부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노인들이 직접 장소를 조성 혹은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 환경을 직접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결과적으로 'A 방앗간'(서울시 중랑구 소재), 'B 빌라 앞 길가'(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C동 가로변 공원'(서울시 도봉구 소재) 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노인인구가 밀집된 환경이었으며 저층주거지였다. 'A 방앗간'은 제3의 장소 기능을 하는 상점으로 상점주인(노인)이 장소를 형성하였다. 노인들은 상점 및 상점 앞 길가를 점유하며 장소를 이용하였다. 'B빌라 앞 길가'는 골목길에 위치한 제3의 장소로 인근 주택 주민들이 장소를 형성하였다. 주택 앞 길가를 점유하며 장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C동 가로변 공원'은 가로변 녹지에 위치하며 장소 형성 주체는 명확히 알기 어렵지만 주로 60대 이상 노인이 이용을 하였다. 가로녹지 및 휴게공간, 보도를 점유하며 이용했다. 'A 방앗간'의 경우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상점 형태의 제3의 장소로서 한국의 사례로 살펴보는 데 적합하며, 'B빌라 앞 길가'는 선행조사에서 자주 발견한 길가를 점유하는 독특한 장소 이용 방식을 갖고 있어 선정되었다. 'C동 가로변 공원'은 국내외에서 자주 발견되는 공원에서 체스 혹은 장기를 두는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연구 대상 장소로 선정되었으며 본 장소는 정식적인 공원과 달리 가로변 휴게공간에 가까운 곳으로 보도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특이점 또한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세 곳의 장소 선정 뒤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 2.2 자료 수집

장소 조사는 크게 심층 면담, 관찰조사, 참여 관찰로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은 2019년 10월~12월, 2020년 4월~5월로 총 5개월간 이루어졌다. 면담은 직접 노인이 이용하는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연구의 초반에는 동네와 노인의 이용 장소에 관해 조사한 선행조사를 바탕으로 미리 파악된 노인의 특성 및 제3의 장소 이용 행태를 참고하여 개방형 연구 질문(기본 인적 사항, 집 외에 주로 이용하는 장소, 장소 이용 이유, 장소 이용 빈도, 장소 이용 행태 관련 질문 등)을 하였고 인터뷰 진행에 따라 추가 질문을 했다. 면담 시간은 3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1회씩 진행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핸드폰을 통해 녹음하였으며 면담 후 세 시간 이내 연구자가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면담 초기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참여자와의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핵심 질문을 제외하고는 참여자와의 대화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하며 면담이 진행되었다. 관찰조사 및 참여 관찰은 수차례 이루어졌으며 특히, 참여관찰 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5차례 이상의 2시간 이상 해당 장소에 머무르며 대화를 하면서 참여자들의 주된 대화 내용, 주변 환경 및 이용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물리적 환경을 동네의 맥락과 더불어 파악하기 위해 일대를 함께 살폈으며 사진촬영 및 측량 등을 진행하였다.

### 3. 노인의 제3의 장소

#### 3.1 해외 노인의 제3의 장소

제3의 장소에 관한 연구 중 노인과 관계에 대해 연구한 다양한 해외 사례를 볼 수 있다. Cheang(2002)의 연구는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제3의 장소로서 패스트푸드점이 기능하는 사례를 자세하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가 있다. 그는 호놀룰루의 한 패스트푸드 점에서 노인들이 사회적 교류를 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놀기 위해 장소를 이용함을 발견했다. 이들은 패스트푸드 점에 방문하는 것을 일과로 삼고 있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한 접근성(충분한 주차 공간, 가까운 버스 정류장, 1층으로 휠체어 또는 걸어서 편하게 갈 수 있음), 안전(상주하는 직원), 편하게 머물 수 있음이 있었다. 또한 음식 가격이 부담되지 않았으며 커피 리필이 무료이고, 직원들은 친절했다. 그들은 시니어 센터를 선호하지 않았으며 시니어 센터를 도움이 필요한 늙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생각했으며 지나치게 구조화되어있다고 생각했다. 몇몇 선행연구는 주거지역 내의 제3의 장소의 역할을 얘기했다. Gibler 와 Taltavull(2010)은 노인에게 있어 노년기에 거주할 집을 찾는 데 제3의 장소와의 접근성은 중요한 옵션임을 발견했다. Lee(2019)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3의 장소를 늘리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Alidoust(2015)는 접근이 쉬운 지역 내 제3의 장소는 사회적 유대를 만들었고 보행 친화적인 환경은 사람과 마주치고 대화하며 약한 유대를 형성하게 해주었다고 밝혔다. 이 둘은, 발코니, 로비, 엘리베이터, 정원, 우편함과 같은 제3의 장소와 사적인 공간의 경계에 위치한 구역(transitory zone, soft edges)이 제3의 장소와 함께 이웃 간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를 장려한다고 제시했다.

#### 3.2 자생적인 노인의 제3의 장소

연구 조사에서 발견한 장소 중 '자생적'인 노인의 제3의 장소 분석을 진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노인의 제3의 장소란 임의의 장소가 노인의 제3의 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인이 직접 조성, 운영 혹은 유지하는 곳이다. 조사를 통해 방앗간, 빌라 앞 길가, 가로변 장기 두는 곳 세 군데를 찾을 수 있었다. 수집된 자료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장소별 특징 및 사람들의 이용 행태, 물리적 환경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장소들은 자생적 장소, 즉 노인이 직접 제3의 장소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물리적 환경이나 소품 하나하나가 노인의 필요 환경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 4. 한국 노인의 제3의 장소의 특성 및 구성요소

자생적 도시 노인의 제3의 장소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 노인의 제3의 장소의 특성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 4.1 주거지와 인접성

장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인근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동성이 저하되는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과 제3의 장소를 자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집과 가까운 거리에 제3의 장소가 있거나, 걷기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방문의 용이함과 같이 노인에게 있어 장소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A, B, C 장소를 제3의 장소로 이용하는 노인 대부분은 집에서부터 걸어서 장소에 오며 그 거리가 도보로 10분 이내였다.

*"여기 산 지 30년도 더 넘었는데. 방앗간 생길 때부터 알았지. 어디가 좋은지 어디 다른 데는 나는 잘 몰라요. 어디 나는 나가지를 모르니까. 집에 있다가 여기 나오고."*  
- A 방앗간

*"이유를 뭐라 그럴까 편하고 놀기 좋고 편하니까 주위 사람들도 시끄럽다는 말도 하지 않고 일단은 편하니까 그렇겠지 가깝고."*  
- B 빌라 앞 길가

*"장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니까 여기 일대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된 거야."*  
- C동 가로변 공원

#### 4.2 개방적인 장소

세 곳 모두 지나가는 사람과 소통을 하거나,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쉽게 장소에 접근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형성된 커뮤니티가 장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람이 모여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제3의 장소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도 장소의 개방성을 엿볼 수 있다. 장소로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회적 교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개방성은 제3의 장소의 필요한 특성이다. 개방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1) 실외 공간의 사용

A, B, C 장소 모두 길의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A 방앗간은 방앗간 앞 약 3m 정도를 점유하여 평상, 의자를 놓고 사용하면서 지나가는 이웃들과 소통을 하였다. B 빌라 앞 길가와 C동 가로변 공원은 보도,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곳으로 실외면서 동시에 공공공간으로 제3의 장소로서 B, C 장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지나다녔다. 이런 실외 공간의 사용은 노인들로 하여금 장소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장소 및 커뮤니티로의 접근의 문턱을 낮췄다.

##### 2) 내부가 보이는 입면

A 방앗간은 입면이 열고 닫을 수 있는 큰 유리창과 유리문으로 되어있다. 항상 창과 문을 열어 놓고 사용하며 방앗간 내부에 앉아있는 사람과 방앗간 앞의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이 소통하며 장소를 사용한다. 방앗간 영역 외에 있어도 누가, 어떻게 장소를 사용하는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지나가면)와서 쉬어 가라고 그러지.”

- A 방앗간

“여기서 나와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리 오고 다들 이리 오잖아  
우리 한 건물 아닌데도 다 이웃이야. 여기 집에서 오고 저기 집에서  
오고 막 오니까.”

- B 빌라 앞 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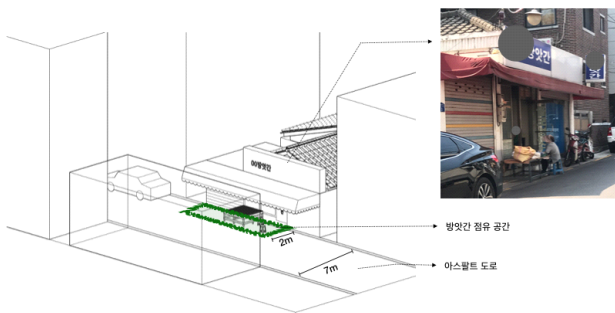
“(길가는 사람들이 오면 불편하진 않으세요?) 그런건 없어  
자연스럽게 와 그거는 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오락으로 하는 거라  
무슨 돈 내기 이런 거 안하고.”

“좋아하면 빈자리 있으면 한번 합시다 이러면 같이 하고 그러는 거야.”

- C동 가로변 공원

### 4.3 독자적 공간

세 장소는 실외 공간을 사용하며 외부와 자연스럽게 섞이는 개방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분명하게 장소 이용자들의 영역이 보존되는 독립성이 있었다. 이런 독립성은 사적인 공간<sup>1)</sup>의 이용이나 공공공간에 물건을 갖다 놓고 점유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된 영역을 관리하며, 장소에 애칭을 붙이고, 장소 개선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독립성이 노인들이 형성한 제3의 장소에서 장소성<sup>2)</sup>과 장소애착<sup>3)</sup>을 갖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1] A 방앗간 입면

#### 1) 닫힌 공간

세 곳은 모두 해당 장소를 제3의 장소로 이용하는 노인들의 닫힌 영역이 뚜렷하게 존재했다. A 방앗간은 실내 공간인 방앗간 내부가 닫힌 공간이며, B 빌라 앞 길가는 B 빌라의 주차장 뒤편 공간, C산 입구 장기 두는 곳은 포장마차 옆의 구석 공간이 닫힌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전용 공간이다. 이런 닫힌 공간들은 각 장소에서 사용하는 의자, 테이블, 장기관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보관하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 1) 본 연구에서 공간은 물리적 영역 그 자체에 가까우며 장소는 물리적인 것 이외에 비 물리적인 요소(유대감, 친밀감 등)와 의미가 가미된 곳을 말한다.
- 2) 공간의 물리적 특성 이외에도 개인 혹은 집단이 갖고 있는 공간의 의미.
- 3) 사람이 장소에 갖는 유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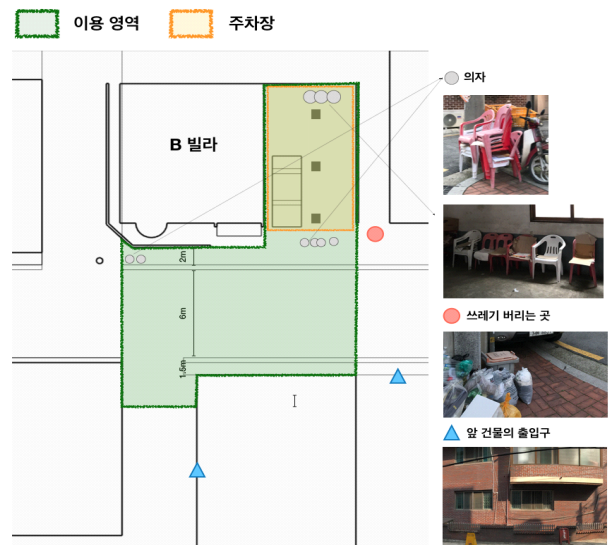
“우리는 여기를 학교라고 불러.”

“근데 여기가 뭐 다 불편한 건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앉아서  
놀아서 그런가? 저거를 말뚝을 박아가고 못 놀게 저기 그래서  
구경까지 갔었어! 그랬더니 이거를 박는 거는 쉽대요. 근데 이거를  
빼는거는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 저 입구에서 여기까지 말뚝을  
막으라고 그랬더니 천만 원 예산이 든대요. 말뚝을 박아 줄 순 있대요.  
근데 빼기는 힘들다고 구경까지 갔었어요.”

- B 빌라 앞 길가

“비 오는 날 못 놀고 바람불면 못 놀고 지붕만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지금 해준 건 비 줄줄 새고 하나마나라고 자기네들도 여기는 공원이  
데서 이런 건축물을 해줄 수 없나봐 우선 같은거 신호등 밑에 있는 거  
그런걸 해달라고 했는데 저런건.. 천장이 있는 것도 좋고 비 안 맞게만  
해주면 좋을 텐데.”

- C동 가로변 공원



[그림 2] B 빌라 앞 길가

### 4.4 머무르기 편안한 장소

평균 두 시간 이상 장소에 머무르는 노인의 이용 특성 상 장소는 편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해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신체적 부담을 더 느낄 수 있으므로 편안하고 편리하게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에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세 곳의 장소 분석을 통해 발견한 편리성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앉을 수 있음

노인에게 앉을 수 있는 것은 장소를 이용하는 데 필수요소이다. A 방앗간은 주인이 직접 마련한 의자가 있으며, B 빌라 앞 길가는 장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구한 의자, C산 입구 장기 두는 곳은 장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구입한 의자가 있다. 대부분은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로 편안한 사용이 가능하다. C산 입구 장기 두는 곳에서 장기를 구경하는 노인 중 몇몇의 노인을 제외하고 A, B, C 장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



[그림 3] A, C 장소의 의자

## 2)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장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선 화장실은 기본으로 갖춰져야 될 시설이다. 노인의 경우 특히 화장실 사용이 중요하다. A, B 장소의 경우 거주지와 아주 근접하여 필요할 때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C 장소는 300m 남짓한 곳에 공중화장실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인근 식당을 자주 이용하며 얼굴을 익혀 놓고 식당 화장실을 사용했다.

## 3) 음식 섭취 가능

세 장소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쉽게 구하고 섭취할 수 있었다. A 방앗간은 주인이 매일 물을 하루에 한번 구매하여 냉장고에 보관해놓고 찾아오는 노인들에게 제공하였다. 주인과 이용자들은 음식을 가져와 서로 나눠먹었고, 이웃들도 가끔 음식을 나눠주었다. B 빌라 앞 길가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따뜻한 물, 커피, 먹을 것 등을 항상 집에서 가져와 서로 나눠 먹었다. C 장기 두는 곳의 이용자들은 먹을 것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장소 바로 옆의 포장마차에서 원할 때 음식을 구매하여 섭취하고 있었다.

*“여기 앉아서 노니까 좋아요. 여기 오면 하하 웃고 기분 좋고 그렇게 놀아요.”*  
- A 방앗간

*“아 부침개도 부쳐오고 감자도 어저께도 고구마도 삶아 먹었고 커피 끓여오고 물 끓여오고 그래. 뜨거운 물 많이 끓여와.”*  
*“뭘 편하다할까 앓을 수 있으니까 앉아서 놀 수 있으니까.”*  
- B 빌라 앞 길가

*“화장실은 필수지.”*  
*“노는 데는 화장실 꼭 있어야지. 걸어서 한 300m 정도 돼.”*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가지 식사하는 사람들은 얼굴 아니까 서로 가서 좀 쓰고.”*  
- C동 가로변 공원

## 4.5 쾌적한 공간

쾌적성은 공간 이용의 질을 높이는 중요 요소이다. 노인의 제3의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쾌적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 1) 적절한 온열·공기·빛 환경

노인들은 적절한 온열·공기·빛 환경이 조성된 곳을 찾아가거나 직접 환경을 조절하였다. A 방앗간은 차양막이 있으며, 창과 문을 열어 온열 및 공기 환경을 쾌적하게 조절하고 장소에 부채를 마련하여 개인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B 빌라 앞 길가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햇빛에 따라 자리를 옮기거나, 난로 및 담요를 가져왔다. 또한, 쓰레기 배출하는 곳을 이용 영역 밖으로 지정하여 쾌적하게 환경을 유지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열고 닫을 수 있는 창을 통해 공기 환경을 조절하고, 센서 등이 아닌 항시 켜 둘 수 있는 조명을 통해 빛 환경을 조절했다. C산 입구 장기 두는 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그늘진 장소를 사용하며 더위를 피하였다.

## 2) 청결함

각 장소 이용자들은 청결한 장소 유지에 힘을 쓰고 있었다. 특히 넓은 범위를 사용하는 C 장소의 경우 음식 섭취는 대부분 포장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쓰레기 또한 그곳에서 바로 처리하였다. 또한, 자체적으로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하여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였으며 가로수로 인해 벌레가 많이 생길 때마다 구청에 연락을 하여 약을 쳐달라고 요청하였다.

## 3) 비, 눈을 피할 수 있음

매일 장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비나 눈에 관계없이 장소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장치가 필요하다. A 장소의 경우 방앗간 실내 및 차양막, B 장소에는 빌라 건물의 지상층에 삼면이 벽인 주차장 공간이 있어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다. 반면 C 장소의 경우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 및 장치가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으며 장소의 개선 중 가장 강력하게 지붕이 마련되길 소망하였다

*“열어나야 시원하지 냄새도 나가고 기름을 짜니까 항상 문을 열어놔야 해. 겨울에도 문 열어놔 그게 좋아 공기도 나가고 환기가 좋대.”*  
- A 방앗간

*“여기도 오늘도 여기 앉았다가 또 햇빛 갔다가 막 돌아서 땀기 여름에도 그늘지면 그늘에 앉았다가 또 햇빛 지면 다른 데 갔다가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몇 군데 옮기는 거야.”*  
- B 빌라 앞 길가

*“절대적어야 비 안 맞는게.”*  
*“지붕만 못 하는 거야 지붕은 우리가 못하고 허가가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여기 진땀물이 많았는데 약 한번 쳐달라고 하니까 싹 사라졌어 그런 것도 우리가 다해 코로나 약(손 소독제)도 우리가 전화해서 다 한 거야.”*  
*“여기서는 일절 담배 같은 건 못 피게 서로 하기 때문에 담배 안 피우면 쓰레기 안 생기고 커피 먹고 이러면 바로 가게로 가버리니까.”*  
- C동 가로변 공원

#### 4.6 안전이 보장됨

안전성 역시 쾌적성과 마찬가지로 많은 장소의 중요 요소로 꼽힌다. 세 장소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장소의 인지가 안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A, B, C 장소 모두 주변에 상시 머무는 사람들에게 노인들의 모임 장소로 인식되어 있었다. A, B 장소의 경우 인근의 주택 및 상가에 상주하는 사람들과 매일같이 인사를 나누고 교류하였으며, C 장소의 경우 인근 상가에 상주하는 사람들과 바로 옆에 위치한 포장마차 주인이 늘 장소를 관찰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안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 오면 오며 가며 사람들이 술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빵도 사다 주고 우리 그런 재미로 여기 앉아서 놀아요.”*  
- A 방앗간

*“다른 사람들도 우리 보면 좀 저기 할머니들 앉아 계시니까 좀 보는 눈들이 좀 웃으면서 참 좋게 봐. 아 엄마들이 심심하니 노시는구나 이렇게 보더라고 한번 쳐다보고 그래. 다 좋은 표정을 보니까 좋고 우리도 가다가 잡수라고 사 오기도 하고 그래. 우리가 해서 먹기도 하고 가다가 주기도 하고 재밌어!”*  
- B 빌라 앞 길가

#### 4.7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는 장소

세 곳 모두 제3의 장소로 기능한지 20년 이상 되었다. 이용자 들 또한 장소를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제3의 장소가 오랜 기간 한 곳에 있으며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늘 가는 장소, 장소를 찾아가는 길 등 익숙한 환경은 노인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여기 산 지 30년도 더 넘었는데. 방앗간 생길 때부터 알았지. 어디가 좋은지 어디 다른 데는 나는 잘 몰라요. 어디 나는 나가지를 않으니까. 집에 있다가 여기 나오고.”*  
*“20년. 딱 20년째. 5월 20일이 20년. 오래 있었지.”*  
- A 방앗간

*“여기 이사 오고부터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십 육칠 년 되나”*  
- B 빌라 앞 길가

*“여기 다 아는 사람들이야. 다 여기나오니까. 보통 10년 15년 다닌 사람들이야.”*  
*“근데 나올 데가 없잖아. 막 돌아다니는 것도 한때지. 이런데 자리 잡고 있으면 보람이 있지.”*  
- C동 가로변 공원

#### 4.8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노인들은 세 장소를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자율적으로 이용하였다. A, B, C 장소는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오전부터 저녁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장소 이용의 제한이 없다. 이런 자율성은 기관 또는 시설 이용과는 차별되며 노인들로 하여금 원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1) 움직일 수 있는 소품

자율적인 이용을 구성하는 요소로 움직일 수 있는 소품이 있다. 각 장소에서 노인들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의자를 꺼낼 수 있으며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 이용할 수 있다. C산 입구 장 기 두는 곳에선 만들어 둔 장기판을 모아 둔 곳에서 원할 때 누 구나 꺼내 사용할 수 있다. 장기를 두는 테이블 역시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할 때 가져와 쓸 수 있다. 이런 소품들은 노인들이 쉽게 꺼내 쓸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데 의자의 경우 대부분이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하였다.

*“점심 저녁 일찍 드시는 사람들은 한 두 시쯤 갔다가 네 시에 나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저씨가 밥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섯 시면 들어가 열두 시에 나왔다가.”*  
- B 빌라 앞 길가

*“매일하듯 매일 노인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 추석이나 설 명절에도 제사지내고 여기 나와.”*  
- C동 가로변 공원

#### 4.9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

인터뷰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교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세 장소에서 모두 사회적 교류가 발생했으며 친밀한 관계까지 이어져 나갔다. A, B 장소는 대화가 주로 이루어 졌으며 C 장소에 선 ‘장사모’라는 모임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사장님이 편하고 들어와라 본인 얘기도 참 잘하시고 또 내 얘기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오는 거야.”*  
- A 방앗간

*“가정사 얘기도 하고 테레비 뉴스 이야기도 하고. 또 뭐냐 아프다는 거 동네 이야기도 하고 병원 이야기도 하고 뭐든 뉴스거리지 뭐 맛있는 거 있고 웃도 썬데 있고, 자식 자랑도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엄마들 모임면”*  
*“아 형제들보다 더 재밌게 살아.”*  
- B 빌라 앞 길가

*“장사모(장기를 사랑하는 모임) 있다고 했잖아 20명 돼 매달 1-2만원씩 해서 만원은 밥 먹고 만원은 적립해서 저런 거 만드는 거야.”*  
- C동 가로변 공원

#### 4.10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음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노인들이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꼽은 것은 장소의 이용이 무료라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노년기의 특성은 노인들로 하여금 돈이 들지 않는 곳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노인들은 오랜 시간, 자주 제3의 장소를 이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일지라도 돈이 드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여기 기원은 저 밑에 한참가면 있는데 거기는 돈을 내야 해  
일반인은 사천 원이고 경로우대는 이천 원인데 하루에 이천 원 맨날  
가면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노인들이 하루에 천원이라도 아끼려고 커피  
값도 아끼는데.”

“여긴 365일 비만 안 오면 무료야.”  
- C동 가로변 공원

#### 4.11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

장소 이용에 대해 노인들은 '논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이들에게 제3의 장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 이상의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이었다. 오랜 기간 한 곳을 이용하고, 오랜 시간을 머무는 제3의 장소에서 즐거움을 주는 오락성은 중요한 특성이다.

##### 1) 대화

세 장소에서 이뤄지는 주된 행위가 대화인 만큼 노인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큰 즐거움을 갖고 있었다. 대화의 주제는 사적인 이야기부터 사회 관련 이슈까지 다양했으며 건강이나 생필품 구매 관련 정보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공유도 이루어졌다.

##### 2) 장기

C 장소는 장기를 통해 모임이 형성될 만큼 C 장소의 이용자들은 장기를 오랜 취미생활로 갖고 있었다. 장기를 좋아하는 만큼 이용자들은 자체적으로 장기테이블과 장기판을 만들고 오락을 즐겁게 즐기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뭐 근데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고 노는 게 제일 좋으니까 재밌어!  
너무 좋아.”  
- B 빌라 앞 길가

“그렇지 여기 친구가 많아요. 오락은 얼굴 아는 사람끼리 놀아야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모이는 거야.”  
- C동 가로변 공원

#### 5. 결론

본 연구는 제3의 장소가 노인의 일상에 긍정적 지원을 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제3의 장소가 가진 구체적인 필요환경을 찾아내기 위해 자생적인 노인의 제3의 장소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11가지 특성 (주거지와의 인접성, 개방적인 장소, 독자적 공간, 머무르기 편안한 장소, 쾌적한 공간, 안전이 보장됨,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는 장소,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음,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한국 노인의 제3의 장소의 특성 및 구성요소는 다양한 물리적·비 물리적 요소로 이루어져있었다. 각 특성들은 공간이 노인에게 제3의 장소로 기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추후 노인을 위한 장소 조성 및 개선 시 해당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환경 디자인이 요구된다.

2) 이러한 특성 및 구성요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가령, 주거지와의 인접성은 안전함을 느끼는 것과 연결될 수 있으며 머무르기에 편안함을 주는 요소와 쾌적한 공간 또한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준다. 개방적인 장소와 독자적 공간은 자칫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두 특성이 양립하며 존재한다는 점에서 각 특성들을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미 조성된 기관 혹은 시설의 이용행태 위주 분석의 기존 연구와 달리 노인이 자체적으로 형성한 곳을 통해 필요 환경을 파악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제시된 한국 노인의 장소에 관한 특성과 필요 요건이 추후 노인을 위한 환경 조성 시 유의미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제3의 장소를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갈 곳이 부재하거나 고립되어 있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또한, 서울의 한정된 지역 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추후 확장된 연구 대상지 및 다양한 배경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몇 년의 차이만으로도 세대가 구별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노인과 10년 후의 노인은 전혀 다를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동시간이 더 많은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추가 연구 또한 필요하다.

사사: 본 연구는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o. NRF-2020R1F1A1073081)

#### 참고문헌

- Alidoust, Sara, Caryl Bosman, and Gordon Holden, 2018, "Planning for Healthy Ageing: How the Use of Third Places Contributes to the Social Health of Older Populations.", *Ageing & Society* 39 (7), USA.
- Cheang, M, 2002, "Older adults' frequent visits to a fast-food restaurant: Nonobligatory social interaction and the significance of play in a "third place"", *Journal of Aging Studies*, 16(3), USA.
- Gibler, Karen M., and Paloma Taltavull, 2010, "Using Preferences for International Retiree Housing Market Segmentation." *Journal of Property Research* 27 (3), USA.
- Lee, J. H, 2015, "Older adults' third places and perceived social connectedness", Ph.D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 Lee, J. H, & Tan, T. H, 2019, "Neighborhood Walkability or Third Places? Determinants of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USA.
- Oldenburg, R, 1999, "The great good place: Cafes, coffee shops, bookstores, bars, hair salons, and other hangouts at the heart of a community", Da Capo Press.
- Oldenburg, Ray, 1997, "Our Vanishing Third Places.", *Planning Commissioners Journal* 25 (4), USA.

접수 : 2021년 02월 16일  
1차 심사완료 : 2021년 02월 23일  
게재확정일자 : 2021년 03월 02일  
3인 익명 심사 필